

116년 역사 ‘경인선 안춘천교 상판’ 철도박물관에 전시

국가철도공단, 철도박물관에 기증...역사적 가치 재조명



1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나희승 코레일 사장(오른쪽 네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박물관에서 경인선 안춘천교 상판 기증식이 열렸다. 2, 3 안춘천교 상선(왼쪽)과 상2선

국가철도공단은 116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이어준 경인선 안춘천교 교량 상판 2기와 레일과 침목 등 부속품 45점을 지난 4월 7일 철도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김한영 이사장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업관리단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기념식 제막, 안춘천교의 역사적 의미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기증한 안춘천교 상판과 부속품은 대한제국 시절인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한 노량진~제물포 철도 구간에 위치했다.

애초 목재로 시공됐지만 1906년 철재로 재시공한 뒤 100년 이상 열차가 운행했으며, 지난해 콘크리트 개량공사가 완료되면서 철거됐다. 상판 2기 중 하나인 상1선 철교는 대한제국 시절인 1906년 경인선 선

로개량 공사 때 설치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재 교량이다.

구체적인 준공일과 시공사까지 명확하게 기록돼 사료로서 의미가 상당하고 당시 건축 양식과 기술을 엿볼 수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 나머지 하나인 상2선 철교도 1976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초창기 교량으로, 해방 이후 교량 기술을 보존하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

공단은 근대기에 준공돼 애환이 깃든 철도 건축물을 보존함으로써 철도 역사를 재조명하고 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기증한 유물이 잘 보존돼 철도 역사를 연구하고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